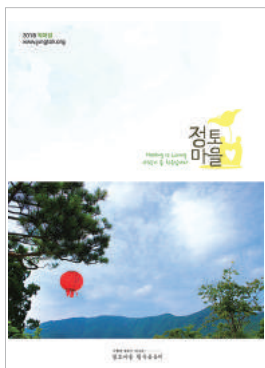


2018 익어감
www.jungtoh.org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발행처_ (재)정토사관재회 **발행일**_ 2018년 6월 28일 발행 **편집인**_ 능행 **등록**_ 울산바01004 (2008.4.11) **편집위원**_ 장광대 김현아 최진현 **사진**_ 편집부 **정토마을(울산)**_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88) **정토마을(청주)**_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_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21) **제작**_ (재)정토사관자재회
비매품 본 인쇄물은 석보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18 익어감 (통권 38호)

목 차

01	여는 글	04
02	부처님 오신 날	06
03	정토마을에서 만나다	10
04	자재요양병원 칼럼	13
05	법화경 강설	16
06	교육후기	22
07	대학원 이야기	24
08	청주 정토마을	26
09	공덕의 향	28
10	후원명단 및 감사의 글	29
11	정토마을 소식	33
12	모연문	38

그대 가슴에 편지 담아드리며

숲은 날로 푸르러지고,
새들은 자유롭게 푸름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어 보이는 새들이 참 부러운 오후입니다.
자재병원 앞뜰에 늙은 감나무는 감꽃을 피우느라 애쓰고,
수각 옆 어린 앵두나무는 앵두 두 알 빨갛게 맺히어 기쁘고,
초과일 연등은 바람 그네를 타느라 즐겁습니다.
여름 숲에 찬연히 반짝이는 초록빛 광휘가 생명력을 더해주는 오후
정토마을과 함께 걸어주시는,
정토마을 후원가족이신 당신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며칠 전 정토마을 재단에서 함께 네팔 고산지역 산골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지상 위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많이 아팠답니다.
3년 전 네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산골 작은 보건소가 약 삼만 오천여 명의
질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여 그 열악
함이 이루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산골 주민들의 생명이 될 식수마저도 없어 그저 막막하여 정토마을 재단이 보건
소를 포함한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하고 정비해주기를 1년 전부터 요청해 온 그곳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뻥뻥한 수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힘겨운 답답함만 현장에서
가득히 안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 첩첩산중 산골에 살고 있는 삼만 오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보건소와 물을 줄 수 있을지 고민과 근심을 놓을 수가 없었습
니다.





아이들이 황톳물로 목을 축여가며 노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넘치는 복인지...

가슴 깊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보건소 옆은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질퍽한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네팔 산골 마을, 자비가 절실한 그 곳에 어떻게 물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보건소를 지어 줄 수 있을지.....

또 다른 소식입니다.

2017년 가을에, 많은 정토마을 가족께옵서 자비의 마음을 내어 주시어 인도 보드가야 불가촉천민 대상 의료봉사를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2018년 11월 11일, 정토마을은 또 다시 다양한 약을 준비하여 인도 남쪽의 티베트 스님이 1만여 명 이상 살고 계신 곳에 의료봉사를 갈 것입니다.

그 곳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그대께옵서도 다시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내어 드리는 보시는 곧 나의 심신의 강건함으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들의 강건한 삶을 위하여 조금씩 나누고 내어 주며 살면 참 좋겠지요.

여름 햇살로 열매가 향기를 품고 농익어가듯 그대에게도 달달한 향기 가득한 사랑이 익어가는 하루가 매일매일 이어지시기를 빕니다.

푸른 햇살 좋은 여름날 **능행 합장**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초심회 배 소 영

온 가족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봉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하고 물어 오는 아들 녀석에게 “봉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라는 약간은 엉뚱한 대답을 해주며 엉덩이를 두드려 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러 가는 길이 난 참 좋다. 좋은 공기와 예쁜 자연들을 마음껏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도착한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부처님 오신 날 이틀 뒤라서 그 날은 어머니 생신 챙기느라 봉사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어머니는 나에게 늘 부처님 같은 존재이고 곁에 계셔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올해는 어머니의 생신을 조금 일찍 챙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부처님 오신 날 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의 점심은 ‘국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국수를 담고 나누어 주는 일.

채소와 다시용 멸치 등을 넣어 큰 솥에서 육수를 푹 끓이는 모습을 보며 ‘참! 정성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끓여낸 육수를 살짝 맛본 봉사자들은 너무 맛있는 맛에 놀라 육수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웃으시며 열심히 대답해 주시는 모습에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육수를 내고 국수를 삶고, 다양한 고명들을 준비한 뒤 국수를 나누어주기 전에 모두들 한 그릇씩 먹어 보았다. 일명 ‘시식회’, 정말 맛있었다. 육수뿐만 아니라 국수 삶는 비법까지도 듣고 싶었다.

지금도 “일이라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신나게 엉덩이춤도 추시고, 어깨춤도 추시던 우리의 요리사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봉사하는 우리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등등 웃으며 인사하시고는 맛있게 국수를 드셨고 더 먹고 싶다며 다시 오시는 분들을 볼 땐 왠지 내가 만든 국수 인양 으쓱하기도 했다. 국수를 드리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봉사자들의 웃는 모습이 좋았고, 드시는 분들의 웃는 모습이 좋았다.

늘 생각되었던 것이지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환자분들께나 직원들 뿐 아니라 보호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다.

여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정토마을 풍경

사진 : 편집부



붓다의 탄생, 그 순간의 아침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정토마을의 사부대중이 함께
법당에 모여 한 마음으로
여법하게 법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붓다의 진신사리 친견

관불의식으로 법요식을
마무리한 후 능행 스님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께 직접
꽃 공양을 올릴 수 있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정토마을 역사를 만나며

지금까지 정토마을이 걸어 온
수행과 돌봄의 역사를
사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작은 전시회가 열려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정토인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

자재병원의 인기 보양제,
'경옥고'를 경품으로
신발 차기 이벤트가 열려
스님과 재가자, 환우까지 모두
함께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라이브 공연

통기타 연주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음색의 노래로,
'소리나눔' 밴드와
'보문 거사' 님의
라이브 공연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함께 진행된 이번 공연으로
자재병원 환우들을 포함하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캄툴 린포체 초청

**보살계 수계법회와 관음관정,
아미타관정 특별 법회를 마치고...**

자원개발실 팀장
김 현 아

나는 이렇게 보고 느꼈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인도 따시종 까꾸파 제9대 법왕 캄툴 린포체를 초청, 청주·언양 정토마을에서 특별한 법회가 봉행되었다.

과거 생에 출가 수행자로 수행에 전념하시다가 환생하여 생불로 화현하심이 증명된 린포체님. 살아 있는 산부처님께 관정을 받고 보살계 수계를 받는 것은 참으로 한 생을 살면서 만나기 어려운 희유하고도 길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관정이란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의 종자를 본존불의 가피를 통해 드

리나게 하는 여법한 의식으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입문식과 같다.

티베트 사람들은 관정 의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열심히 참석을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관정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그 가피력으로 악업이 소멸되어 선근은 증장하고, 내생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복덕을 두루 갖춘 중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단단히 믿기 때문이다.

관정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린포체, 즉 환생한 큰스님만이 내릴 수 있다 하니 행사를 앞두고 일어나는 환희심과 설렘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캄툼 린포체님을 뵙기 위해 전국에서 청주 정토마을로 오신 많은 불자님들께서 캄툼 린포체님을 뵙는 순간 땅바닥에 오체투지를 하는 것을 보며, 캄툼 린포체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일으키게 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음을 느꼈다. 장거리 여정에 많이 피곤하심에도 한결같이 따스한 미소를 머금은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 주셨다.

이틀 동안 관정법회를 받으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캄툼 린포체님께서 감정에 치우치신다거나 동정심·냉정함 같은 표정은 찾을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말씀들을 할 뿐이며 그 말씀들은 캄툼 린포체님 가슴에 닿아 체득한 지혜의 말씀들이구나, 함을 알게 되었다.

관정의 가피는 관정을 받는 사람이 성불을 향한 원력과 신심이 불보살님의 마음에 계합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내 마음 속 감동의 물결은 계속되었고 청주 행사를 마치고 연양 정토마을에서 보살계 수계를 내리기 위해 스님을 모시고 함께 연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휴게소에 잠시 들러 캄툼 린포체님께 공양할 간식을 준비하는데 통역하시는 지덕스님께서 드시고 싶은 것을 직접 고르시라고 말씀드리니 케이크 한 조각을 선택하셨다. 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맛보여 드리고 싶어서 여

러 종류를 골고루 잘라 드렸더니, 간결하고 아주 따뜻한 감사의 답도 잊지 않으셨다.

캄툼 린포체님께서 공양을 드시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셨으며, 꾸밈없는 모습이 휴게실 식당 의자에 앉으셔도 어색함이 없으셨다. 사람에게 다가서기 위한 제스처나 화려한 웃음, 여러 가지 유창한 말솜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동요됨도 없이, 그저 공양에 집중하실 뿐이셨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온전히 깨어 있으신 모습과 고요하고 차분하시며 자애로운 존안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자세가 낮추어졌다.

때로는 대중을 향해 손가락 하트도 보내실 줄 아시고 궁금하신 점은 소년처럼 질문하실 줄도 아시는 분, 시끄러운 대중 속의 각각의 사연을 대면하시면서도 마음은 전혀 요동이 없으신 분.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런 수행자를 처음 보았던 것 같다.

내가 오래 전에 티베트에 갔을 때 큰스님을 뵈었는데, 린포체님께서 관정을 하러 한국에 오시면 꼭 찾아가서 관정을 받는 게 좋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캄툼 린포체의 일정을 미리 알아 정토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오봉사 관음관정도 참가했고 람림학당에서의 문수진실명경을 관정받고 구전도 받았다.



구전의 중요성을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구전 받은 후 한 독을 독경하는 것과 구전 받지 않고 천독을 독경하는 것은 같다고….

이번 모든 행사에 선업의 공덕을 장엄하신 설판 공덕주님들께 주어진 길상의 보병.

조사어록 심구결 여의주 7장에 의하면 부귀와 건강, 장수, 소원성취, 장애 소멸 등은 복덕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고로 부와 좋은 운을 끌어당겨 오는 보병을 조성하여 모신다고 하셨다.

이 신비의 보병을 얻은 모든 설판 공덕주님들은 재신의 기운으로 가운은 날로 창성하여지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어 소원성취 하시옵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나는 이번 캄툴 린포체님을 모시고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공부를 성장케 하였고 이 선업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또 다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에 상응하는 행운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이차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

보급어일체 널리 일체에 미치어

아등여중생 저희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개공성불도 부처님의 도가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탐구한 용기 있는 여의사들

- 시실리 손더스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

자재요양병원 내과부장 조 명 진

1982년 ‘간소한 삶(simple living)’을 이상향으로 삼고 수많은 책과 강연을 펼쳤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리고 환경론자였던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가 넘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 나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가 나의 죽음에 배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 같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유언은 그의 임종을 지켰던 현명

하고 사려 깊은 그의 아내, 헬렌 니어링에 의해서 충실히 지켜졌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대략 19세기 후반까지, 그리고 다른 동양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중후반까지 스코트 니어링이 누렸듯 임종 시에 환자들이 가족들에 둘러싸여 애도와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2) 생의 주기를 보여주는 오래된 사자성어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보듯,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의학



마더 테레사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1973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을 무너뜨렸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생의 자연스러운 귀결’에서 수치스러운 ‘의학적 실패’로 근원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의학적 유물론(medical materialism)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은 많은 의사들은 죽음을 싸워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전투적 자세로 일관하다가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을 ‘실패’로 간주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 환자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돌봄과 멀어진 채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적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영국의 시실리 손더스 여사는 1960년대 당시 의사들의 말기 환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 의학은 완치를 목표로 한다. 만일 완치시킬 수 없을 경우 의사들은 그들이 실패했다고 느낀다. 현대의학은 답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의사들은 말기 환자와 임종에 들어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최대한 회피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실패를 마주 대하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그녀는 이러한 현대의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을 두어 1967년 런던 외곽에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건립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녀가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전인적 돌봄을 주장하며 소개한

‘총체적 고통(total pain)’이란 개념입니다. 총체적 고통이란 것은 말기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더스는 이 모든 측면의 고통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때 말기 환자들이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그녀는 당시로서는 생경했던 다학제 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심리상담사 등)을 구성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현대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점차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이 뒤따르면서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시실리 손더스와 함께 말기 환자들을 위한 돌봄에 나섰던 스위스 출신의 미국인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또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고통에 집중하였습니다. 1968년에 발표된 죽음의 순간(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은 죽어가는 수백 명의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 죽어가는 환자들의 5단계 심리 이론(부정-분노-타협-우



환자와 함께 있는
Dr. 시실리 손더스

울-수용)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그녀는 약 20여 권에 달하는 죽음에 관한 연구 저서들을 발표하여 죽음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말기 환자들의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관한 연구와 업적으로 그녀는 1999년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100대 사상가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학자로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올랐을 때조차도 사회적, 학계적인 금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넘나들며 죽음학의 지평을 연 그녀를 감히 안다고 하거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년의 그녀는 임사체험자 2만 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영원에서 영원으로 여행을 하는 존재’라는 통찰을 내놓습니다. 특히 이 임사체험 연구의 결정판인 ‘사후생(on life after death)’은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가 어우러져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사체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죽음과 영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은 암에 걸린 아이에게 쓴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내져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몸은 벗어도 좋아.
우리의 몸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누에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물이란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몸을 놓아버리고
영혼을 해방시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의 정원으로 돌아간단다.
아름다운 한 마리의 자유로운
나비처럼 말이야.

늘 죽음을 ‘여행’에 비유했던 그녀는 1995년 심장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평화로운 죽음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병원의 엘리베이터에 4층이라는 표현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생물학적 종착역인 죽음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이기에, 죽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삶을 이해하고 소중히 하는 태도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통찰은 결국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결됩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경우 말기 환자와 임종에 들어선 환자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돌보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하루하루를 보다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묘법연화경 제1권

第六. 수기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제 6 수기품

-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한다

첫째 주제. 가섭 존자가 수기를 받다
: 가섭 존자는 광명여래가 되리라

1) 전법제자 두타제일 마하가섭 摩訶迦葉

부처님의 전법제자인 가섭 존자는 본래 인도의 마가다국 왕사성 근교의 바라문촌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심이 많았던 찢파리는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 아리따운 바들러와 결혼을 합니다. 32세 되던 즈음 양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느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벌레가 새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본 찢파리와 바들러는 함께 출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설一說에, 그는 스승을 만난 후 8일 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하가섭은 흔히 두타제일이라 일컫는데, 두타頭陀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치기 위한 수행실천을 말합니다. 그는 또 부처님의 의발衣鉢을 물려받은 전법제자이기도 하지요. 즉 후계자가 되어 이후 비구들을 모아 경전을 편찬하는 결집대회를 주관합니다.

2) 가섭이 오자 화장터미에 불이 붙다

그 무렵 대가섭 존자는 500명 제자들과 파바국에서 쿠시나가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손에 한 니건자를 만나 부처님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러자 니건자는 부처님께서 이미 입멸하신 지 7일이 지났다고 말하고, 가섭과 그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슬피 울면서 땀과 슬픔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가섭과 그의 제자 일행이 도착하여 아난존자에게 한 번만이라도 법구를 직접 뵈기를 청하였으나, 부처님을 겹겹이 감쌌기 때문에 뵈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대가섭이 향터미로 향해 걸어가자, 바로 그 때 부처님께서 곽락 속에서 두 발이 나란히 내밀어졌는데 발에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가섭은 부처님의 법

구에 예배하고, 가섭이 시를 낭송하자 그동안 불이 붙지 않았던 화장더미는 저절로 불타 오르기 시작합니다. --- [한글대장경: 유행경]

6-1

“내 제자인 이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3백만억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고 받들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널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고 최후의 몸은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광명光明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광덕光德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大莊嚴이며, ---”

6-2

그 나라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其土清淨하야 琉璃爲地하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 도로마다 즐비하며, 多諸寶樹하야 行列道側하고

6-3

갖가지 아름다운 그런 걸로 장엄할새 種種奇妙로 以爲莊嚴하며
그 땅이 평정하여 구렁 언덕 없으며, 其地平正하야 無有丘坑하며

둘째 주제. 세 분의 존자, 수기를 받다

1) 4대 성문의 신앙고백

6-4

“그 때 대목건련과 수보리와 마하가전연 등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러 보며 눈도 깜박이지 않더니, 곧 같은 소리로 계송을 함께 말하였다.”

장하신 세존은 석釋씨 문중 법왕이라 大雄猛世尊은 諸釋之法王이시라
불쌍한 우리 위해 부처 말씀 주옵소서. 哀愍我等故로 而賜佛音聲이셨다

6-5

우리 마음 아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若知我深心하야 見爲授記者면
감로수로 열을 제해 시원함과 같나이다. 如以甘露灑하야 除熱得清涼이니다

6-6

주린 배로 헤매다 대왕 성찬 만났어도 如從飢國來하야 忽遇大王饌하야도
마음이 두려워서 감히 먹지 못하올새 心猶懷疑懼하야 未敢即便食인맛호니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야 감식하듯 若復得王敎라사 然後乃敢食이니다

함께 수기를 받더라도 무게가 다른 것일까요! 어쨌든 위는 금강경의 주인공인 수보리존자에 대한 수기 내리기 전에 아라한들이 신앙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수기받고 싶는데 맡겨 놓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 눈치만 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파티나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주인이 먹으라고 해야 편히 먹을 수 있을 텐데 ---. 아무튼 초조한 마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참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2)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

6-7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3백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친견하여, 받들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항상 범행을 닦아 보살의 도를 갖추어 최후의 몸에서 성불을 하면 그 이름은 명상名相여래 응공 정변지 — 천인사 불세존이며, 겁의 이름은 유보有寶요, 나라 이름은 보생寶生이리라. 그 국토는 평탄하며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로 장엄하며, ……”

수보리는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기억됩니다. 본래 수보리는 기원정사를 시주한 급고독 장자의 동생인 수마나의 아들로 사위국에서 태어납니다. 이 기원정사에서 첫 법회를 여는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발심출가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타고난 성격이 모질고 포악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나무가 있으면 '왜 이 나무는 반듯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자애선정慈愛禪定' 공부를 시킵니다. 수보리는 자비심을 닦아 아라한과를 얻고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해공제일解空第一 제자가 됩니다. 수보리는 자애선정을 닦아서 시비가 뚝 끊어진 이후부터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받는 데는 수보리가 제일이다'는 이름이 붙습니다. 출가전과 출가후 자비가 넘치는 수보리를 보기위해 사람들은 앞 다투어 공양을 올리려 했던 까닭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나이가 든 수보리 존자를 '무쟁삼매제일無諍三昧第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무쟁삼매의 근원을 찾아보니 반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결과였으므로 해공제일解空第一이 된 것입니다.

3) 논의제일論議第一 가전연 존자

(1) 토론의 명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다

부처님의 제자 중 논의제일이라고 불리는 가전연 존자는 아반티국의 바라문 출신으로 당시 파조다왕(惡生王)의 명령을 받고 부처님을 청하러 가는 일곱 명의 사신 중 한 사람이었다가 마침내 출가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행적 중에 마투라 국왕을 향하여 사성계급의 종성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행위[業]에 따라 귀천이 있는 것이지, 태어난 자체로 계급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설법은 아주 유명합니다.

6-8

“내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이 대가전연은 오는 세상에 8천억 부처님을 여러 가지 공양기구로써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그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는 탑을 일으키되, 높이가 1천 유순이며 길이나 넓이가 똑같이 5백 유순이리라. 금은 유리 자거 마노 진주 매괴玫瑰 등 7보를 모아 이룩하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도향 말향 소향과 증개 당번으로 그 탑묘에 공양하고, …… 보살의 도를 갖추고 마땅히 성불하리라.”

6-9

부처님 멸도한 뒤 7보의 탑 일으키되
아름다운 꽃으로 사리를 공양하며,

諸佛滅後에 起七寶塔호대
亦以華香으로 供養舍利하며

6 - 10

부처님의 광명보다 더할 이가 있을손가. 佛之光明은 無能勝者리라
그와 같이 밝은 부처 이름은 염부금광 其佛號曰 閻浮金光이라

이처럼 마하가전연 존자의 수기 때에는 탐묘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법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할 탐과 불상을 많이 짓고 공양하는 법화신앙이기도 합니다.

(2) 일야현자日夜賢者の 계偈

가전연 존자가 왕사성의 타포우다(온천) 정사에서 있을 때, 사밋디라는 비구가 온천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천인天人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건네기를,

"당신은 일야 현자의 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하고 사밋디가 대답을 하자 천인은,

"그렇다면 그것을 스승인 부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사밋디는 부처님께 찾아가 <일야현자의 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부처님은 즉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만 현재의 것을
그것이 있는 곳에서 관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일 없이,
잘 간파하여 실천하라.

----.”

부처님은 일야현자의 계를 사밋디에게 가르쳐 주고는 일어서서 가버렸어요. 사밋디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가전연 존자를 찾아 갑니다. 가전연은, "친구여, 사밋디여, 세존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존 그 어른을 젖혀 두고 나한테 해설을 요구하는 것은 큰 나무가 우뚝 솟아 있는데도, 작은 나무에 의지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렇지만 사밋디는, "세존께 계송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이상 해설까지 해 달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전연 당신은 그만한 학식이 있는 터이니, 제발 세존을 대신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전연 존자는 그 계송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나중에 부처님께서서는 가전연의 해설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거 옳은 말이다. 내가 해설을 했더라도 분명 가전연과 마찬가지로 말했을 것이니라."

4) 목건련은 다마라발전단향多摩羅跋耨檀香여래가 되리라

(1) 생명구제 공덕으로 수명이 늘어나다

그 다음에 4대 제자 가운데 제일 나중에 목건련 존자에게 수기가 내려집니다. 목건

련은 사리불과 함께 2대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수보리와 가전연에게 먼저 수기하시고, 부처님은 그 다음으로 목건련을 그윽히 바라보시고 수기하신 것입니다. 왜 나는 먼저 수기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궁금증이 없었겠습니까!

6 - 11

내 큰 제자인 여기 있는 대목건련	我此弟子에 大目犍連은
이 몸을 버린 뒤에 부처님 여러 세존,	捨是身已하고 得見八千
8천2백 만억이나 많고 많은 그 부처님	二百萬億 諸佛世尊하야
불도를 위하므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爲佛道故로 供養恭敬하며

6 - 12

그 부처님 열반 후엔 7보탑을 세우되	諸佛滅後에 起七寶塔호대
높게 꽃은 긴 표찰表刹은 황금 칠해 만들고	長表金刹하며 華香伎樂으로
꽃과 향과 기악으로 탑묘를 공양하며	而以供養 諸佛塔廟하고
보살도를 점점 갖춰	漸漸具足 菩薩道已에는

목건련 존자에 대해서는 《법화경수수法華經授手》의 내용을 보면, "아함경에서 말하기를, 목건련 존자가 수행시절에 벽지불에게 시봉을 하고 그에게 신통력을 익혀서 아라한이 되고 난 뒤, 외도들이 주문으로 산을 옮겨 놓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산에 사는 여러 곤충과 짐승들을 어여빠 여긴 나머지 신통력으로 막아낸 일이 있었다는 설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건련이 성불하는 세상은 수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두 배나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곤충과 짐승들의 생명을 살려준 방생공덕이 아닐까요!

6 - 13

“그 겁의 이름은 희만喜滿이요, 나라 이름은 의락意樂이며,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하여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 나무로 장엄하며 진주로 된 꽃을 흩어 두루 청정하게 하거늘,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여 천상과 인민도 많고 보살과 성문도 그 수가 한량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겁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40소겁이며 상법도 정법과 같은 기간을 머무르리라.”

(2) 신통제일, 효행제일 목건련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낸 효심孝心이지요. 목건련 존자의 어렸을 때 이름은 '나복'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 '청제 부인'과 슬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다가 하루는 나복이 재산을 3등분한 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하나는 제가 장사 밑천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버님을 위해 사문沙門을 모셔다가 공양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나복이 외국으로 장사를 떠나자 청제 부인은 매일 잔치를 열어 재를 올릴 공양금마저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3년 후, 나복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사람들이 청제 부인의 악행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7일 만에 지

옥에 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머니는 자신의 말대로 7일 후 죽었고, 아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복은 장사로 번 모든 재산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친구인 사리불 존자와 함께 출가하여 산자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 뒤 부처님께 귀의하여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6신통을 얻었고, 효심이 지극한 목건련 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선정에 들어 관觀해 보니,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부처님께 청하여 7월 보름 안거 해제 때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어머니를 구제합니다. 이처럼 목건련은 신통력을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승화시키고, 나중에 수로나국 사람들을 교화하 시다가 외도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로써 일생을 마감합니다.

셋째 주제. 보편적인 수기작불의 시작

1) 수기는 곧 불국토의 미래요 남녀평등의 실천

수기품 제6에서는 비유설법이 끝나고 아라한들에게 수기내리는 모습을 밝힌 내용입니다. 먼저 마하가섭을 필두로 4대제자들에게 수기가 내려지는데,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짐을 암시하며,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앞의 사리불의 수기처럼 일치되는 것은 국토 전체가 잘 장엄되고, 더러운 것이 없고 언덕이나 골짜기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파라다이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토계 경전인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에 흔히 보이는 "여인이 없다"는 따위의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토중에서는 법장法藏비구가 48가지 서원을 통해 성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둘째, 내가 성불한 국토에는 여인이 없기를 원한다. 서른두 번째, 수 없는 여인들이 다음 세상에서 여자 몸을 원치 않는다."고 발원합니다.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여인의 성불과 일천제의 성불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히 최고의 경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2) 하근중생들에게 옛 인연을 말씀하여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다

6 - 11

나의 여러 제자 위덕 모두 갖춘 이들	我諸弟子의 威德具足이
그 수가 5백인데 하나도 빠짐 없이	其數五百이라 皆當授記호대
오는 세상 성불한다 수기하여 줄 것이라	於未來世에 咸得成佛하리라

수기품 말미에 이렇게 계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설해질 제7 화성유품의 내용이 바로 인연설법이라는 표현이란 뜻입니다. 보편적인 수기의 목적은 곧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사(生死)의 장(場)

= 생(生)과 사(死)의 마당, 그곳은 어디일까



안금실

46기 생사의 장 수료

모두가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각기 다르듯,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과 장소 또한 제 각각일 것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감은 늘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애써 외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외면하든, 남 일이라 치부하든, 나 또한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이 생에서 무엇을 갖고, 어떤 것을 이루었든, 사랑하는 부모, 자식, 남편, 친구, 누구도 같이 갈수 없고, 또한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하는 평등한 길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가고 싶은가?

가보지 않은 여정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길에 섰을 때 나의 의지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불교호스피스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는 죽음이 과연 어떤 과정을 지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사전에 미리 알고 배운다면 조금은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나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 앞에 서 있는 선생(先生)들에게 무언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착한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은 고즈넉하고 정갈했다.

그곳에서 함께 한 7일간의 여정에서 나는 감동과 회한의 눈물과 더불어 때때로 내 안 깊숙이 감춰진 것들과 마주하는 순간을 만났다. 또한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는 매 순간마다 어김없이 나를 이끌어주는 연민을 가진 따뜻한 손길들이 있어 위안 받았다. 나의 불안함과 온전히 마주했을 때 나의 의지처가 되어준 불보살님과 스님들, 스텝 그리고 선배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

내가 듣기로 부처님께서는 생명 가진 존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자심(慈心)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심(悲心)이 있으며 그 때문에 내안에 있는 자비심(慈悲心)을 나눌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하셨다.

불교호스피스과정에서 타인에게 자비심을 나누는 많은 영적 돌봄가들과 봉사자들을 보았고, 그들에 의지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보았으며, 나를 향한 자비심과 만나는 시간이 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가 그것의 실상(實像)과 마주하는 순간인지도 모른다. 꿈을 상실했을 때가 내 꿈의 실상을 보는 시기이며, 용기를 상실할 때 내 용기의 실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육체를 상실하는 순간이 온전히 나의 실상을 만나는 지점일수도 있지 않을까?



불교호스피스 과정을 통해 나는 막연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끌고 오는 두려움의 양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이 덜어진 공간에 신기하게 찰나 생, 찰나 멸의 매 순간을 더 생생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모든 것은 지속되지 않고 변화한다. 이 무상(無常)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다.

살아서 다시 만나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능행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당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설립자이자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이신 능행 스님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교수님들께 동문, 재학생, 신입생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물었습니다.



능행 스님

“이곳에서 빛이 되어라.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위덕대학교 장익 총장님



“대학원이 2년 반 과정이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좀 더 올인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길에 한번 매진해서 몰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분명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교육전문가과정도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각자 깊이 있는 자기성찰, 그리고 학술과 실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생명교육과정의 학생들에게도 부탁을 한다면, 불교 윤리는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종교윤리가 아니고, 세속적 윤리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고지순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까지 불교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나친 계율주의나 원칙주의에 빠져있어서 현대적인 해석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생명윤리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교라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있어서도 불교가 해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금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하보디심리명상대학원 김경일 교수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고 할까. 배우는 자세, 학문하는 태도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문을 갖고 무엇을 더 알아보고

자 하는 태도는 좋지만 너무 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으로 공부를 받아들이려 하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공부할 때에는 늘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 배우겠다는 그 자세로 공부를 하면, 그 뒤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과 서로 상충되고 틀리더라도 조절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 을 너무 강하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걸리게 돼요. 특히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공부과정은 더더욱 그렇죠. 속을 텅 비우고 선입견 없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위덕대학교 권기현 교수님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불교를 흔히 종교적인 의미로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수행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여타한 부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해야 하는 거죠. 부처님과 동격인 사람은 변할 게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스스로 변화하고 그 변화를 남들에게 삶으로서 전달해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우리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담이라거나 남들에게 그런 삶을 전이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내 삶의 변화, 지식적인 차원보다도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공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 대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처럼, 다만, 본인이 먼저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야 하죠. 완전한 성숙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서 감동받고 변화를 느끼고 나서 남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순수 학문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주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정토마을 염불禪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 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AM 9시 ~ 일요일 PM 1시 (1박 2일)
준 비 물 천주염주, 개인 물병, 무릎담요, 염불선복 또는 편안한 복장
동 참 비 5만 원
장 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접수문의 043-298-2258, 010-7305-4935 무량지
전날 입교 가능,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일 정** **6월 염불선수행** 15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16일(토) AM 9시 ~ 17일(일) PM 1시 (1박 2일)
7월 염불선수행 20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21일(토) AM 9시 ~ 22일(일) PM 1시 (1박 2일)
8월 염불선수행 17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18일(토) AM 9시 ~ 19일(일) PM 1시 (1박 2일)
9월 염불선수행 14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15일(토) AM 9시 ~ 16일(일) PM 1시 (1박 2일)
10월 염불선수행 19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20일(토) AM 9시 ~ 21일(일) PM 1시 (1박 2일)
11월 염불선수행 23일(금) PM 7시 30분 켄쁘스님 특별법문
수행일정: 24일(토) AM 9시 ~ 25일(일) PM 1시 (1박 2일)
(11월 염불선 수행은 의료봉사 일정으로 넷째 주에 진행합니다)

청주 정토마을 금요법회

- 일 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 누구나 참석 (전날 입소가능)
주 제 지덕스님의 사가행 법문 (*사가행 : sngon-gro, 금강승 수행의 시작)
장 소 청주정토마을 법당

- ◎ **찾아오시는 길** 청주가경터미널 또는 KTX, SRT기차
오송역을 이용하시면 정토마을 차량을 운행합니다.
- ◎ **정토마을 차량 운행시간** 청주가경터미널 오후 3시, 오후 5시20분
오송역 오후 6시
- ◎ **연락처** 043-298-2258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하고자 발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염불의 방법과 염불선 수행법

네 가지 염불(念佛)의 방법

1. **칭명(稱名)염불**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염불.
2. **관상(觀像)염불** 부처의 상호(32상 80종호)를 갖춘 원만덕상을 관찰하는 염불.
3.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의 자비공덕이나 지혜광명 등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상념하는 염불.
4. **실상(實相)염불** 부처님(佛)의 법신(法身)이 비유비공(非有非空)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묘심(妙心)임을 관조(觀照)하는 염불.

열 가지 염불선 수행법

1. **계신염불(戒身念佛)** 몸가짐의 염불로 계율을 지켜, 밝고 뚜렷하게 몸을 청정히 하는 것.
2. **계구염불(戒口念佛)** 말 가짐의 염불로 나쁜 말들을 말끔히 없애고, 입을 지켜 마음을 거두는 것.
3. **계의염불(戒意念佛)** 마음가짐의 염불로 삼독심을 버리고 마음의 번뇌를 여의는 것.
4. **동역염불(動憶念佛)** 움직이면서 생각이 끊어져서 밝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
5. **정역염불(靜憶念佛)** 움직이지 않고 하는, 고요히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함이 다하도록 하는 것.
6. **어지염불(語持念佛)** 말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안으로는 염불을 하는 것.
7. **묵지염불(默持念佛)** 말하지 않고, 말이 끊기고, 염(念)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염(念)이 되는 것.
8. **관상염불(觀想念佛)** 부처님 모습을 그리면서, 부처님의 몸이 법계에 가득하며 묘한 광명 눈부신 금빛이 모든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남을 관하고, 또 부처님의 맑고 밝은 자비의 광명이 나의 몸과 마음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모두 부처님의 빛임을 밝게 깨달아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되 그 수가 끝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생각 생각에 끊어짐이 없어 하루 내내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늘 삼가고 늘 깨어서 찰나도 어둡지 않다.
9. **무심염불(無心念佛)** 무심하게 하되, 염불하는 마음이 오래되어 공을 이루면 차차로 무심삼매(無心三昧)를 얻게 되는데, 생각의 때가 없는 진실한 염(念)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알음알이의 티끌이 없는 참 지혜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뚜렷해지는 것.
10. **진여염불(眞如念佛)** 부처님이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염불하는 마음이 이미 끝머리에 이르러 깨달음이 없이 깨달으며 스스로 심(心), 의(意), 식(識)이 본디 텅 빈 것임을 알아서, 한 가지 밝은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다. 모자람 없는 깨달음의 큰 지혜가 밝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이 열 가지 염불은 모두 한결같이 참 깨달음의 자리에서 피어나 부처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는, 더할 수 없이 지극한 수행법입니다. 염불에서 말하는 염(念)이란 바로 지킴(守)을 뜻하며 참 성품을 늘 드러나게 하고 끝없이 기르려면 그것을 지키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염불에서 말하는 불(佛)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참 마음을 밝게 비춰서, 늘 깨어 있어 어둡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무념(無念)으로 밝고 뚜렷하게 깨닫고, 밝고 뚜렷하게 깨달으면 온갖 생각이 끊어지니 이것을 일러 참 염불이라 합니다.

염불하는 이치가 이와 같으니, 만약 먼저 열 가지 악(惡)과 저 여덟 가지 행복한 삶의 길인 팔정도(八正道)에 맞서는 여덟 가지 그릇됨을 끊어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열 가지 계율의 맑고 깨끗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몸이 맑고 깨끗하고 계율의 거울이 환히 밝지 않으면 어떻게 저 열 가지 염불법과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한 뒤에야 진리의 온갖 보배들을 쌓고 모을 수 있으며, 계율의 거울을 환히 밝게 한 뒤에야 부처님께서 자비의 빛을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 아미타불 관련 경전과 큰스님들의 관련 자료 및 염불수행에 관한 아미타불 수행 자료집 중에서



공덕의 향

나의 헌신과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위에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번 정토마을 공덕의 향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모연에 힘써 주신 공덕주님들의
아름다운 자비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올려 드립니다.

(가나다 순)

강민정 님, 강예구(디불대) 님, 권순선 님, 김석종 님, 김시에 님, 김영자 님,
김계수(자비공덕회) 님, 김은희 님, 김재운 님, 김정옥 님, 김지연 님, 노태식 님,
노태임 님, 문쌍부 님, 박광연 님, 박영희 님, 박재홍 님, 서광희 님, 송봉관 님,
송지환 님, 신동희 님, 우명선(법등회) 님, 이남이 님, 이말순 님, 이선화 님,
이영숙(관음행) 님, 이춘애 님, 정명화 님, 정애순 님, 정일순 님, 진말숙 님,
최봉희 님, 한환희주 님과,
경덕수 님, 김유현 님, 김은구 님, 김은진 님, 김현아 님, 김화옥 님, 남궁은숙 님,
도우스 님, 도운스 님, 서진스 님, 손삼경 님, 윤원주 님, 이영실 님, 임주은 님,
민대식 님, 장광대 님, 정현영 님, 최진미 님, 하주연 님, 호연스 님,

그리고 여러분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도가족

2018년 2월

강규민	권용희	김혜숙	설유혜	이정희	조상미
강민경	김동석	박영숙	손기순	이차순	최정희
강민수	김성숙	박지환	신명희	임정숙	하옥수
강옥화	김영숙	박진현	유주희	임혜경	한윤자
곽노상	김제준	백수경	이서빈	정경아	홍정민
구기재	김태호	백수연	이양현	정연자	황재용

2018년 3월

강순이	김현정	서재기	오다영	이학자	최미순
김남희	김하윤	성지영	우춘달	이현자	허민호
김도희	깨달은공동체	송가연	유미라	장만수	
김재우	노영준	송성우	유숙영	장병순	
김재윤	박화자	신진숙	유순희	전채민	
김정자	서경우	심병섭	이상민	정해섭	
김해숙	서영환	오건일	이수진	주소현	

2018년 4월

강두석	김연숙	박동윤	윤다정	이옥자	정영덕
권윤시	김옥희	박세정	이상봉	이종균	최주옥
권인숙	김정길	박주희	이수정	이진세	홍지우
김도희	김혜정	백채현	이승훈	장정희	황금호
김시환	남은주	안용원	이연준	정미경	

2018년 5월

강동화	김미리	박정후	이대식	이한결	정승호
강민숙	김재우	박준수	이승재	이한솔	조선주
강선옥	김재하	변태숙	이우희	이현진	채민정
강현경	김태한	신혜경	이은실	임수점	채수용
김금주	박소희	안연이	이재복	임정임	최선호
김도경	박영심	이근배	이진수	전정순	

108병상

2018년 2월

강민정	김옥순	김진수(영)	김태안	이부자	진인수
김미혜	김정희	김진홍	안금실	이정향	최선희

2018년 3월

강갑순	김병옥	문혜원	하지수
구양숙	김형수	최보춘	

2018년 4월

강봉균	김동욱	문병호	윤연숙	정봉스님	최필숙
곽계순	김명심	범해스님	이연희	조금주	하남식
구태식	김연주	석선심	이정민	지덕스님	
김경원	김용애	송연심	임예진	최수향	
김규린	김희년	유미라	장차옥	최은희	

2018년 5월

강순희	박서경	우성희	이현종	장영숙	최정자
강은선	박수경	유보배	이혜인	정교경	하진경
곽지영	박수연	윤귀미	임수영	정재완	한경호
김민수	박행선	윤연숙	임지연	조이영	
김혜봉	배용길	이순임	임향숙	진계수	
달능스님	백임진	이인노	장순해	최광운	

2018년 2월 ~ 2018년 5월까지의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세로 가나다 순)

일시후원

2018년 2월

김순이 무관스님 원타스님 정의석 한소영 홍유진
도영스님 서봉스님 장안사연꽃회 정정자(영)
만우스님 석남사포교원

2018년 3월

김명숙 성곤스님 원각스님 이찬영 인각스님 자명화
남국종합건설 안은화 이상숙 익명

2018년 4월

김봉석 수환스님 윤성이 종성스님 진상스님 최연호
박휘수 원택스님 이귀순

2018년 5월

김경우 박노미 부산관음회 이종원 정정숙 허현행
김순자 박윤경 소하 전선숙 정희경(영) 홍란기
민경옥 박윤경 이영균

의료봉사

2017년 10월

강상호	김정희	손원주	이미진	재병원의료팀	하우성
강인선	김종혁	송돌임	이봉숙	장경	하준열
강찬모	김희정	수환스님	이영애	장광대	해솔사한미음원
구순희	나민순	신석봉	이의열	장재룡	혜원
권민지	도운스님	심수영	이장천	전세준	혜인스님
권영민	류정임	심재현	이재운	정선옥	황다원
권영훈	류혜숙	심형준	이정수	정정숙	
김동구	문금실	안혜경	이태훈	조계사신도회	
김문희	박봉수	양두홍(영)	이항림	조성진	
김민설	박애자	양선희	이혜숙	조숙자	
김성봉	박필남	엄주호	이환우(영)	차정숙	
김성희	백승순	연화사신	익명	청련화	
김수민	변영진	도일동	임두성(영)	최금자	
김숙희	사경순(영)	연화제	임두영(영)	최도(영)	
김영구	서슬기	오순열(영)	임명하(영)	최문자	
김영덕	서치경(영)	오지수	임순자	최영택	
김영주	선우희	울산해양경찰서	임지석	최완식	
김원우	소보윤	윤정우	자재병원	최희정	
김윤지	소보현	윤춘자	간호부	한희선	
김정숙	소성일	이단순(영)	재병원원무팀	허미성	

건립후원

2018년 4월

대주스님

2018년 5월

정인희

법화경법보시

김덕광 박영희 송금자 송기옥 임옥이 황행만
김영임

2017년 국제의료봉사 의약품 후원
2017.10. ~ 2018. 01. 명단입니다.
과월호 지면 상 실지 못하여
이번 호에 게재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367연지회	김성숙	백인자	원성스님	임남환	최정통
강정숙	김수라	법연스님	유남미	임문숙	최태주
곽훈기	김정숙	봉은영	윤대련	임양환	한명희
권민정	김현실	사상호	윤세빈	임연자	한환희주
권정희	김희자	상복농협	윤임숙	임일환	허동호
김경희	남국종합건설	서계숙	이경아	장병철	해공스님
김대현	덕해스님	신한은행무거점	이보화	정오삼	해광스님
김미수	도안스님	안성이	이선영	정원경	해원스님
김미옥	도우스님	안정순	이승열	차문환	황순자
김민옥	민경진	여호준	이연준	차민화	
김민주	민상기	예성수	이을주	차화연	
김병조	박경미	우룡스님	익명	천효정	
김선희	박윤경	울산초심회	임국환	청주봉사	

2017년 12월

김지영 이한길

2018년 1월

이동식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땅 1 평

2018년 2월

김민채 이두리 이현성 장혜영 정교경 정석호
김보영 이시윤

2018년 3월

곽형석 김혜봉 문경란 유방스님 이준명 함성호
김명경 노승식 문기란 이상백 이준모 홍경자

2018년 4월

김선희 김효영

2018년 5월

강미소 노외섭 백승동 정덕화 정은선 차신호
강상모 백선영 백운호 정성엽 조민석 차지은
권오숙

희망시멘트

2018년 3월

현진스님

2018년 4월

김경원 김효빈 조은자
김형우 신영숙

법당불사

2018년 2월

권순선 손성근(영) 손청자(영)

2018년 3월

김무웅 김봉철 김옥랑 김진수(영) 오외숙 이행자
김민화

2018년 4월

강호균 김옥례 박정자 배대한(영) 배선헌 이정애(영)
김영숙 박규하

2018년 5월

김도현 박연천 윤대련 이숙경 임정임 김다량
김민설 박종열 이대훈 이주비 장훈일 김다울
김민수 박종일 이보금 이준우 전용목
김태풍 손명국 이봉례(영) 임수영 정정숙
나병길 신정미 이상환 임수점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2018. 2.

BTN 김진숙 부산은행연암 원해스님 익명 최세진
강상렬 김천만 부산재비공덕회 윤정평 익명 최현우
강상호 김현아 상북농협주유소 윤춘자 임옥이 해원스님
고경화 김화옥 상북우체국 이난정 장혜영 황유철
광주한미음선원 도운스님 서진스님 이남이 전환스님 황효순
권순선 도활스님 석남사 이미라 정성희
김병갑 무명씨 손청자(영) 이보화 정순옥
김상남 민갑석딸 송금자 이옥선 정청례
김성숙 박기연 송기옥 이윤숙 조명희
김영숙 박상금 송봉관 이의열 조인숙
김정길 박상원 심불사 이정수 진말숙
김정옥 박정자 울산선우회 익명 채원자

2018. 3.

김기연 김진홍 서민지 임선주 정청례 허미성
김민수 노기동 서춘복 임순범 조인숙 황부기
김성숙 백정근 연경스님 임옥이 지허스님
김정숙 법인사무국 울산선우회 정교경 최세진
김진홍 상호스님 이경진 정무식 최임득

2018. 4.

강계선 김선애 문선영 신말남 울산선우회 조점남
경덕스님 김선자 박봉숙 심불사스님 유태복 최기수
김귀순 김재윤 박혜숙 안병덕 임선주 최병도
김기연 김재환 박혜옥 영조스님 장철순 황정자
김문자 김진홍 서민지 옥숙자 정청례 황호월

2018. 5.

김무겸 김진홍 도활스님 울산선우회 이주비 최안선
김재윤 김현아 법인사무국 윤미자 이한지 현불회
김정순 노기동 서경스님 이만우 임선주
김정자 노외섭 송영미 이영애 최세진



— 편지 —

유월 아침에 비가 내립니다.
자재병원 입구에 핀 노란 장미가 잎을 떨구어 빗물에 자신을 띄워 보냅니다.
그렇게 오월은 가고, 유월이 와서 태양빛에 땅이 뜨거워지고
바람도 그 뜨거움을 품어 안은 것 같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꽃처럼 피어나고
대한민국은 일꾼들을 뽑느라 참 많이도 분주한 유월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인간의 탄생은 탄생대로 이어지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일에 무심한 듯 떠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유월 아침입니다.

지난 오월 그대께옵서
정토마을 하늘가에 밝혀 주셨던 연등은
석가여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보궁 불사에 보태어져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나아가서는 인류와 일체 생명의 삶에
부처님처럼 마음먹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에 다시금 기도드리며
그대 걸음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피 가득하시길 빕니다.

촉촉하게 여름 향기 퍼지는 아침
능행 합장

108병상 기부 동참하기

정토마을에서는 20년 간 실천해 온 호스피스완화의료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전문화 및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8병상 모연을 병행합니다.

1구좌 108만 원이며, 36개월(월 3만 원) 분납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계좌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정토마을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후원자 분들의 안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가 2018년 무술년에도 언양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이어집니다. 병고액난과 악업소멸을 위한 티베트 밀교의식과 법화경독송이 함께하는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입재일 2017년 2월 26일 (음력 2월 초하루)
기도동참비 매월 3만원 36개월 분납 (자동이체)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백중49일자장기도(흠부다라니)

선망부모와 법계의 유주무주 고훈 영가를 천도하는 백중(우란분절) 기도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효심이 지극한 목련존자의 신통력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육도윤회의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교 5대 명절로 전해진 날입니다. 불제자들의 수행력과 효심으로 금생에 가피를 청합니다.

기도입재일 2018년 7월 8일(양) **회향일** 2018년 8월 25일(양)
기도동참비 50,000 원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9차) 백일기도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병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 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입재일 2018년 5월 22일(양) **회향일** 2018년 9월 2일(양)
기도동참비 300,000 원 (분납 가능)
접수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자재병원 자원봉사 이야기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공간,
이곳은 자재요양병원입니다

담당 김은구 사회복지사



옥저나눔회 이명채 회장

정기적으로 물품후원과 함께 매월 회원님들의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십니다. 주로 병원과 교육원 미세먼지 청소, 환우 식사보조, 병원 주변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개구리예술단 장세림 회장

회원님들의 매월 정기적인 재능기부 봉사로 병원의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초심회 장영순 회장

회원님들의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도움을 주고 계시며, 병원 환우들 대상 미용봉사나 환경정비 봉사, 식사보조 등으로 동참해 주십니다.

정토인들의 정진 ...

1기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20명 수료

지난 3월 27일, 2박 3일 일정으로 (사)한국 불교호스피스가 주관하고, 마하보디교육원이 주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 30점 인증과정인 '1기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21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20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교육을 통한 영적돌봄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 솔마더(Soul mother) 개강

지난 4월 1일, 2016년도에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솔마더(Soul mother) 첫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0명의 솔마더(Soul mother)들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지도법사이신 능행스님과 함께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하여, 타인에게 강력한 영적 치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련하게 됩니다.



공동체 직원교육 - 법당예절 및 불교인사법

지난 4월 30일,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법당예절 및 불교인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체 직원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승가공동체 총무이신 도우스님께서 합장과 절하는 방법에 대해 지도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행위로써의 절과 합장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논리학(딱셀) 공부

지난 5월 25일~26일, 6월 4일 논리학(딱셀)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성사 주지이신 계시 소남 갈첸 스님께서 지도하여 주셨으며, 삼구(三句), 사구(四句), 모순, 동의 네 가지로 분석해 논쟁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답을 구하는 유쾌하고 명쾌한 수업이었습니다.



MAHABODHI EDUCATION CENTER

대학원 졸업식 및 입학식

지난 3월 3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졸업식 및 2018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석사과정 1명과 전문가과정 2명이 졸업하고, 석사과정 5명과 전문가과정 1명이 입학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외빈과 재학생, 졸업생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학원 MT

지난 5월 12일 오후, 김경일 주임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천년고찰인 영축총림 통도사로 우중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 금와보살이 계시는 자장암으로 이어진 여정을 통해 교수님과 제자들의 친목을 다지고 서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 시민무료특강 -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

봄 시민무료특강이 3월 8일, 4월 12일, 5월 10일, 6월 7일 등 총 4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매체심리상담 전문강사 강인규 교수님과 함께 영화 매체를 활용한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울산 지역의 시민 총 7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3월부터 파랑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와 힐링을 위한 명상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법사 도우스님의 지도 아래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되며 명상을 통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명상수행과
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

불교와
현대심리학의
통합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실천학문의 장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8학년도(후기)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명상심리학 전공) 3명
생명교육전문가과정 3명

지원자격

석사: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전문가: 제한 없음(의료, 철학, 교육, 사회복지 전공자 및 NGO활동가 우대)

접수방법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입학문의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M. 010-4656-0180

E. grad.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www.facebook.com/grad.mahabodhi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구사론 강의

1강 | 6월 26일(화) 2강 | 6월 27일(수)
3강 | 7월 4일(수) 4강 | 7월 5일(목)
5강 | 7월 11일(수) 6강 | 7월 12일(목)
7강 | 7월 18일(수) 8강 | 7월 19일(목)

시 간 14:00 ~ 17:00 3시간

대 상 사부대중 (선착순 30명)

교육비 무료 (재단의 법보시로 교육 진행)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불교임상기도 및 임종의식 교육 안내

기 간 2018년 10월 21일(일) ~ 10월 25일(목) 4박 5일

대 상 사부대중 (선착순 40명)

교육비 60만 원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공통사항

접수방법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교육문의 T. 052)255-8522, 8524 F. 052)264-0209
M. 010-8848-852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 모연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구 분	후원(동참)금	계좌번호	비고
진신사리 보궁 및 삼천불전 건립 불사	100,000 원 이상 일반 동참	농협 351-0487-2570-73 (일시불) 예금주: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CMS)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가능
땅 한 평 공양 불사	300,000 원		
삼천불 조성 불사	주불-5백만 원 이상 삼존불-2천만 원 원불-108만 원		
정토 가족 정기후원	매월 1만 원 이상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3만 원	농협 401131-51-081662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108병상 후원	108만 원 (분납/일시불)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36/20/10 회 분납 가능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남인도 대봉 로셀링 사원 국제의료봉사 의약품 후원 모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

2018년 11월 11일부터 8박 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토마을 국제의료봉사는 남인도의 티베트 자치구에 계신 티베트 스님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저희 정토마을에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 고향을 떠나 멀고 척박한 남인도까지 내려오셨지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불법 수행에 매진하시어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시는 티베트 스님들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의료봉사에서 사용될 < 의약품 후원 >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전 세계에 일깨우기 위해 오늘도 수행에 힘쓰시는 티베트 스님들께 진행되는 정토마을 남인도 국제의료봉사에 뜻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번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품

구충제 약 3천 개

6개월 분량 결핵약 1명 분 × 100명 이상

그 외 소염진통제 · 항생제 · 위장약 · 종합 영양제 · 관절 및 근육통약 · 칼슘제 · 고혈압약 · 인공누액 · 안약 · 피부질환 연고 · 혈액순환제 · 파스 및 안티푸라민 · 간장약 등

국제의료봉사 일정

2018.11.11(일) ~ 2018.11.19(월) 8박 9일

후원계좌

농협 351-0811-2410-83 (예금주: 정토마을)

후원문의

정토마을 사무국 052) 255-8588, 8582

정토마을 실크로드·돈황 성지순례



정토마을에서는 능행스님과 함께 해마다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대만 순례를 시작으로 인도-스리랑카와 미얀마, 부탄에 이어 올해는 삼장법사 현장스님께서 구법의 길을 찾아 떠났던 중국 돈황 실크로드 9일 여정에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 발 2018년 10월 8일(월) - **도 착** 2018년 10월 16일(화)

접수마감 2018년 8월 31일까지

문 의 052)255-8586 정토마을 사무국

담 당 010-3879-7953 평등각

티베트 샤르빠 최제 립상 도르제 린포체 초청 법화경 구전 특별 대법회



붓다의 열반 후 아난존자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암송으로 전하였으며 제자들이 다음 세대에 암송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외워 전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스승님의 입으로 암송되고 그의 제자들이 또다시 암송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지는 불교의 특별한 전통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이 전통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불교의 경·율·론 삼장을 스승님에게 제자가 구전 받아야 그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거나 구전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양 정토마을에서는 법화경을 독송한 지 10주년이 되는 올해 티베트의 샤르빠 최제 립상 도르제 린포체를 모시고 법화경 28품 전 품을 구전 받을 수 있는 고귀한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린포체께서는 「구전 없이 천 번 독송, 사경하는 것」보다 「구전을 받고 한 번 독송, 사경하

- 1937** 티베트 캄 지방 마르캄에서 출생
- 1954** 17세에 마르캄에서 라싸 대불사원 로셀링까지 2달 동안
걸어가 출강 라마 린포체로부터 출가
- 1959** 인도로 망명하신 뒤 제14대 달라이 라마 존자님과 존자님의
스승이신 링 린포체, 티장 린포체, 로셀링 전 방장 빼마 갈첸
린포체 등 많은 스승으로부터 5대 경전을 모두 수학,
링 린포체로부터 구족계를 받음
- 1979** 겔룩파의 학사 2년, 석사 2년, 박사 3년 과정을 거쳐 최종 시험
에서 1등으로 게쉬 하람빠 학위를 받음
- 1985** 밀교 규뵈사원에서 금강승 밀교 공부와 수행을 하심
- 1993** 밀교 규뵈사원의 호법스님 역임
- 1996** 밀교 규뵈사원 방장 역임
- 2016** 겔룩파의 큰 스승 ‘샤르빠 최제 린포체’로 임명됨
- 2021** 겔룩파의 105대 간덴 티파(겔룩파 종정)로 임명될 예정

◆
**샤르빠 최제
롭상 도르제 린포체**
◆

는 것]이 더욱 수승한 공덕이라고 구전법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사경
하거나 독송하시는 분들을 비롯한 불자님들께서는 거룩하고 고귀한 이 구전법회에 두
루 동참하시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붓다의 구전 전승에 따라 샤르빠 최제 롱상
도르제 린포체께 법화경 구전이 현생에서 얻어지고, 그 공덕으로 묘법실상의 가피를 성
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 정 2018. 7. 8.(일) ~ 7. 9.(월)

입 재 2018. 7. 8.(일) 오전 10시 ~ 11시 / 오후 2시 ~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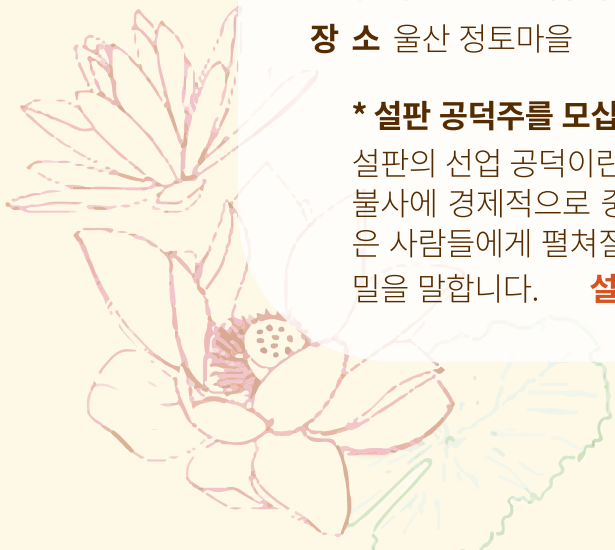
회 향 2018. 7. 9.(월) 오전 9시부터 법화경 구전 28품 완독 후 마침

입재일 당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간월사 간월보궁 기공식이 진행됩니다.

장 소 울산 정토마을 **문 의** 052)255-8588, 010-2926-8500

*** 설판 공덕주를 모십니다**

설판의 선업 공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 큰 법회나
불사에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보시를 함으로써 법회의 장이 많
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선업의 공덕을 짓는 보시바라
밀을 말합니다. **설판 동참금: 1백만 원 이상**



간월사 간월보궁 및 삼천불 공경전 법당 불사 기공식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4년의 모연 끝에 드디어,
아래와 같이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후원자님들께서 저희 병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부처님 품속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을 법당 불사가 절실함을 느끼시고 법당 건립에 모자라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땅 1평 공양 불사에 동참하여 주셨고, 개개인의 원을 담아 원불을 모시는 법당 삼천불전을 건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산 서기 가득한 간월산 좋은 자리에 후원자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모였으니, 이 자리가 바로 제불보살님 호념하는 거룩한 도량이 이룩될 곳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건물의 최초 공정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공식이야말로 우리 정토마을의 큰 경사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꼭 오시어 천년의 대가람 불사가 시작되는 날 함께 주춧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8년 7월 8일 오전 11시

장 소 울산 정토마을 간월보궁 및 삼천불 공경전 법당 불사 현장

문의 052)255-8588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영혼을 밝히는 빛의 소리

임상기도

CD 4입 1패키지 **정가 25,000 원**
구입문의 052-255-8595, 8596

다양한 염불과 진언이 담긴 CD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염불과 진언으로 충실하게 엮어 낸 임상기도 CD는 개인의 수행과 심신의 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환자 및 죽어감의 여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해설집과 해설 트랙이 담겨 있어 매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오래도록 이 CD를 기다리게 하여 또한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장 능행 합장